정보

개요
곡명: Symphony No. 3 in D minor
작곡가: Gustav Mahler (1860–1911)
장르: 교향곡
작곡: 주로 1895–1896년. 제 1악장에 쓰인 초기 스케치는 18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초연: 1902년 6월 9일 Krefeld, Gustav Mahler 지휘
범위: 알토 독창, 소년합창, 여성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현행 6악장 전곡

IMSLP: Symphony No. 3, GMW 31

Wikipedia: Symphony No. 3 (Mahler)

Gustav Mahler의 Symphony No. 3 in D minor는 관현악에 알토 독창, 소년합창, 여성합창이 더해지는 여섯 악장의 교향곡이다 . 긴 제 1악장이 제 1부를 이루고 제 2악장부터 제 6악장까지가 제 2부를 이룬다. 알토는 제 4·5 악장에서, 두 합창은 제 5악장에서만 노래하며, 마지막 악장은 다시 관현악만으로 끝난다. Mahler는 제 2부의 상당 부분을 먼저 쓰고 1896년에 제 1악장을 완성했으며 , 전곡의 첫 연주는 1902년 Krefeld에서 자신이 지휘했다.

여섯 악장으로 완성된 설계

Mahler가 1895년 8월 친구들에게 보낸 작품 목록은 일곱 악장으로 끝났다. 마지막에 놓인 Das himmlische Leben은 이미 작곡해 둔 노래였고, 당시에는 Was mir das Kind erzählt(‘아이가 내게 들려주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1896년 6월의 편지에서 이 노래는 제 3번의 악장 목록에서 빠진다. 현재의
종악장은 제 6악장 아다지오이며 , Das himmlische Leben은 뒤에 교향곡 제 4번의 종악장으로 쓰였다. 제 3번 제 5악장의 노래 Es sungen drei Engel과는 서로 다른 곡이다.

초기 목록에는 ‘초원의 꽃 ’, ‘숲속의 동물 ’, ‘인간 ’, ‘천사 ’, ‘사랑 ’처럼 각 악장을 설명하는 제목도 있었다. Mahler가 1896년 8월에 제시한 여섯 악장의 배열에서 제 1악장은 Pan erwacht(‘Pan이 깨어난다 ’)라는
서주와 Der Sommer marschiert ein(‘여름이 행진해 온다 ’)이라는 본편으로, 나머지는 꽃에서 사랑에 이르는 순서로 나타난다. 이 제목들은 작곡 중 작품을 설명하려던 Mahler의 생각을 보여 준다. 출판된 악보에서는
악장 번호와 빠르기 ·표정 지시로 각 악장을 구분한다. 따라서 ‘꽃의 악장 ’과 ‘동물의 악장 ’은 구상의 맥락에서는 유용하지만 , 아래의 악장명과 같은 지위를 갖지 않는다.

Mahler는 1895년 여름 Steinbach am Attersee에서 뒤의 다섯 악장을 주로 작곡했다. 제 1악장의 일부
재료는 1893년 스케치에서도 발견되지만 , 이 긴 악장의 총보 정리는 1896년 가을까지 이어졌다. 창작 순서가 공연 순서와 다른 셈이다. 1896년 11월 Arthur Nikisch가 Berlin에서 제 2악장을 먼저 연주했고, 1897년 3월

Felix von Weingartner가 제 2·3·6악장을 선보였다 . 여섯 악장을 한 차례에 연주한 것은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난 1902년 Krefeld 초연이었다 .

출판 정보와 자료

Josef Weinberger는 1899년 Vienna에서 지휘자용 총보를 냈다 . 연주에 필요한 관현악 ·합창 파트는 Krefeld 초연 뒤인 1902년 7월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 총보의 초판 연도와 파트의 발행 연도를 구별하면 , 출판된 총보가 초연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과 실제 연주 자료가 뒤이어 정리된 경위가 함께 보인다 .

Mahler가 공연을 거치며 남긴 수정은 뒤의 악보에도 반영되었다 . Universal Edition이 1906년에 낸 연구용 총보는 그때까지의 변경을 상당수 수용했고 , 1912년에는 지휘자용 총보의 수정판이 나왔다 . 1974년 국제 Gustav Mahler 협회의 비평전집 제 3권은 Erwin Ratz와 Karl Heinz Füssl이 편집했다 . Christian Rudolf Riedel이 편집한 Breitkopf & Härtel의 2021년 판본은 ‘1906년 최종판 ’을 표방하며 , Mahler와 초기 지휘자들이 사용한 총보 및 연주 파트까지 대조한다 . 이 판본은 초판 이후의 수정 사항을 1974년 비평판보다 넓은 자료에 비추어 검토한다 .

제 1악장 뒤의 휴지도 자료를 구별해야 하는 부분이다 . Mahler가 1896년 작품을 두 부분으로 설명한 기록이 있고 , 뉴욕 Pierpont Morgan Library가 보관하는 필사 총보에는 제 1악장 끝에 ‘긴 휴지가 뒤따른다 ’는 지시가 남아 있다 . 1899년 인쇄 총보에는 이 문구가 없다 . 오늘날 제 1악장 뒤에 휴식 시간을 두는 공연은 두 부분의 구분을 드러내지만 , 그 휴식의 실제 길이가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

소요 시간

전곡은 대략 95–100분을 잡을 수 있다 . Berliner Philharmoniker의 작품 안내는 94분 , Mahler Foundation의 악장별 참고 시간은 합계 99분이다 . 공연 프로그램과 판본에 따라 더 긴 시간이 제시되기도 한다 . 다음 수치는 Mahler Foundation이 제시한 분 단위 참고치이며 , 제 1악장 뒤에 별도 휴식 시간을 둔다면 그 시간은 연주 시간에 더해진다 .

악장	참고 시간
I. *Kräftig. Entschieden*	약 35분
II. *Tempo di Minuetto. Sehr mäßig*	약 10분
III. *Comodo. Scherzando. Ohne Hast*	약 17분
IV. *Sehr langsam. Misterioso*	약 10분
V. *Lustig im Tempo und keck im Ausdruck*	약 4분
VI. *Langsam. Ruhevoll. Empfunden*	약 23분

편성

목관은 Flöte 4(전원 Piccolo 겸임), Oboe 4(Englischhorn 겸임 포함), Klarinette 5(Es-Klarinette와 Bassklarinette 포함), Fagott 4(Kontrafagott 겸임 포함)이다 . 금관은 Horn 8, Trompete 4, Posaune 4,

Tuba 1이며, 제 3악장에는 무대 밖의 Posthorn 성부가 따로 있다. 이 성부는 악보의 표기와 공연에서 실제로 택한 악기가 다를 수 있다.

Pauke는 두 주자가 맡는다. 나머지 타악에는 Große Trommel, Kleine Trommel, Becken, hängendes Becken, Tamtam, Tamburin, Triangel, Glockenspiel, Glocken 및 Rute가 쓰이고, Harfe 2와 현악 5부가 더해진다. Mahler의 여러 악보와 현대 편성표는 겸임 악기 및 타악 세부 명칭을 조금씩 달리 묶지만, 제 3 악장의 무대 밖 금관과 제 5악장의 종 ·합창을 위한 공간 배치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공연 조건이다. 성악은 Alt 독창, Knabenchor, Frauenchor로 이루어지며 , 두 합창은 제 5악장에만 참여한다.

제 1부: 행진이 시작되는 제 1악장

I. Kräftig. Entschieden

여덟 호른이 함께 울리는 첫 호출 뒤로 관현악이 긴 서주를 전개한다. Berliner Philharmoniker의 해설은 목관 ·현악보다 앞에 나서는 호른, 트롬본, 타악과 이어지는 행진의 대비를 이 악장의 특징으로 짚는다. Mahler 자신도 Natalie Bauer-Lechner에게 보낸 1896년 설명에서 무생물의 정지 상태로부터 생명이 일어나는 듯한 제 1악장 서주를 이야기했다 . 그 말은 출판본의 공식 표제가 아니라, 작곡가가 당시의 음악을 설명한 기록이다.

제 1악장은 서주 뒤 하나의 행진만 곧장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는다. 속도와 성격이 다른 행진들이 번갈아 나타나고, 독주 트롬본이 큰 금관 합주 사이에서 길고 두드러진 선율을 맡는다. 그래서 약 35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은 같은 음량의 지속이 아니라 악기군과 행진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이다. 마지막에 이르는 큰 합주를 앞에 두고도 첫머리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실제 지휘에서 중요한 문제다. Andris Nelsons는 2018년 Boston Symphony Orchestra 공연을 앞둔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극적 강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이 악장의 긴 시간을 조절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제 1악장을 설계할 때 염두에 둔 공연상의 판단이다.

제 2부의 관현악: 미뉴에트와 스케르초

II. Tempo di Minuetto. Sehr mäßig

제 2악장은 제 1악장 다음에 놓인 미뉴에트다 . 오보에의 선율을 중심으로 목관과 현악이 움직이고, 선율의
반복이 악기와 반주의 변화를 동반한다. Mahler가 구상 단계에 적은 ‘초원의 꽃 ’이라는 제목은 이 절제된
편성의 성격을 설명하는 한 단서지만, 악장의 실제 이름은 빠르기를 지시하는 Tempo di Minuetto. Sehr mäßig이다. 제 1악장 뒤 긴 휴식을 택한 공연이라면 이 악장은 제 2부의 시작으로 들리며, 휴식 없이 이어도 여섯 악장의 정해진 두 번째 자리는 바뀌지 않는다.

III. Comodo. Scherzando. Ohne Hast

제 3악장은 Mahler의 노래 Ablösung im Sommer와 관련된 선율을 관현악의 스케르초로 옮긴다. 그 노래의 뻐꾸기와 꾀꼬리 이야기는 목관의 짧고 활발한 움직임을 초기 제목 ‘숲속의 동물 ’과 연결해 준다. 가장 뚜렷한 대비는 무대 위의 관현악과 멀리 놓인 금관 독주 사이에서 생긴다. 스케르초의 분주한 부분이 물러나면 Posthorn 성부가 무대 밖에서 들려오고, 관현악은 이를 비교적 얇은 반주로 받친다.

악보의 성부 이름, 작곡가가 적은 ‘포스트호른 방식으로 ’라는 지시, 실제 악기로 쓰이는 포스트호른 또는 Flügelhorn은 같은 말이 아니다. Benjamin Zander는 자신의 교향곡 제 3번 녹음 해설에서 이 독주를 위해 빈에서 구한 세 밸브 B♭ 포스트호른을 썼다고 밝힌다. 그는 포스트호른이 연주하기 까다로운 악기라는 점도 설명했다. 반면 Jascha Horenstein과 London Symphony Orchestra의 1970년 녹음에는 William Lang의 Flügelhorn이 쓰였다. 두 사례는 같은 무대 밖 성부를 서로 다른 악기로 구현한 기록이다. 어느 쪽이든 독주가 다른 방향과 거리에서 들리는 조건이 제 3악장의 앞뒤 관현악과 대조를 만든다.

제 4·5악장: 밤의 말과 천사의 노래

IV. Sehr langsam. Misterioso

제 4악장에서는 비로소 알토 독창이 등장한다. 텍스트는 Friedrich Nietzsche의 Also sprach Zarathustra에 나오는 ‘O Mensch! Gib Acht!’이다. 깊은 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묻는 노래는 ‘세상은 깊다 ’(Die Welt ist tief) 고 답하고, 고통이 사라지기를 말하는 목소리와 ‘모든 기쁨은 영원을 원한다 ’(Doch all’ Lust will Ewigkeit)는 구절을 마주 놓는다. 앞 악장의 구체적인 새와 동물 이야기에서 제 4악장은 인간이 자신의 고통과 기쁨을
말하는 자리로 옮겨 간다.

성악을 떠받치는 관현악은 크게 밀어붙이는 합주보다 낮고 조용한 반주를 지속한다. Berliner Philharmoniker 가 악장 표기에 덧붙여 제시하는 Durchaus ppp도 이러한 소리의 규모를 가리킨다. Benjamin Zander는
자신의 녹음에서 이 악장의 Oboe와 Englischhorn 글리산도를 구현하려고 Englischhorn의 키와 구멍을
손봤다고 기록했다. 글리산도가 어떤 소리로 들릴지는 악기와 연주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 그의 설명은
악보의 짧은 지시가 실제 연주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 준다.

V. Lustig im Tempo und keck im Ausdruck

제 5악장의 텍스트는 Des Knaben Wunderhorn에 실린 Es sungen drei Engel이다. 소년합창은 ‘Bimm-bamm’을 반복하여 종소리를 흉내 내고, 여성합창은 세 천사가 노래한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가사 속 Peter는 자신의 죄 때문에 울지만,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고 천상의 기쁨을 약속받는다 . 알토 독창이 이 이야기의 어두운 대목에 끼어들기에 , 제 4악장의 고통과 제 5악장의 환한 합창은 가사에서도 서로 맞닿는다. LA Philharmonic의 작품 해설은 두 악장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흔들리는 반주 역시 그 연결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

이 악장은 약 4분으로 짧지만 노래하는 집단 사이의 거리는 공연마다 다른 결과를 낳는다. Zander는 자신의 녹음에서 소년합창을 지휘대 뒤쪽 높은 발코니에, 여성합창을 관현악 뒤에 놓아 둘 사이의 거리를 약 200 피트로 벌렸다고 밝혔다. 그렇게 하면 ‘Bimm-bamm’은 여성합창과 한 덩어리로 들리기보다 떨어진 자리에서 울리는 소리로 녹음된다. 합창의 배치는 악보에 적힌 성부 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 악장의 실연 조건이다.

종악장: 말 없이 이어지는 아다지오

VI. Langsam. Ruhevoll. Empfunden

알토와 두 합창은 제 5악장에서 역할을 마치고, 제 6악장은 관현악만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현악의 느린
선율이 중심이며, 관악과 다른 악기들이 더해지면서 긴 악장의 소리와 폭이 차츰 커진다. Was mir die Liebe erzählt(‘사랑이 내게 들려주는 것 ’)은 Mahler가 이 종악장을 구상하던 때의 제목이지만 , 악보의 이름은

Langsam. Ruhevoll. Empfunden이다. 앞선 노래가 말로 표현한 밤과 구원의 이야기를, 마지막에는 가사 없이 이어지는 선율과 합주가 받는다. 종결부에서는 전곡 첫머리의 D단조와 대비되는 D장조가 확고해진다 .

Andris Nelsons는 2018년 인터뷰에서 지휘자와 악단이 이 악장에 이를 무렵 이미 지쳐 있는데도, Mahler는 특히 긴 프레이즈와 인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는 마지막 악장의 빠르기만 따로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앞의 다섯 악장을 연주하고도 현악과 관악이 긴 선율을 유지해야 하는 공연의 조건을 설명한다. 제 4악장부터 제 6 악장을 휴지 없이 잇는 공연에서는 알토 독창, 합창, 관현악만 남는 종결이 한 흐름 안에서 차례로 나타난다.

초연 이후의 공연과 녹음

1902년 6월 9일 Krefeld의 전곡 초연에는 Luise Geller-Wolter가 알토 독창을 맡았고, Krefeld 시립악단과 Cologne의 Gürzenich Orchestra가 합동으로 연주했다. 여성합창과 St. Anna 소년합창도 참여했다. 앞선 제 2악장 단독 연주나 제 2·3·6악장 공연과 달리, 이날 처음으로 두 성악 악장을 포함한 전곡의 순서가 한
공연에서 실현되었다 .

녹음은 특히 제 1악장의 행진을 어느 정도의 속도와 무게로 유지하는지 , 제 3악장의 먼 독주를 어떤 거리로 잡는지, 마지막 아다지오의 긴 선율을 어떻게 지탱하는지에 따라 차이를 드러낸다. Jascha Horenstein이 London Symphony Orchestra와 1970년 Unicorn을 위해 남긴 녹음에서 독주는 포스트호른이 아니라 Flügelhorn으로 연주되었다 . MusicWeb International의 John Quinn은 이 녹음의 제 1악장이 꾸준한 행진의 속도를 지키면서도 세부 악기 소리를 살리고, 무대 밖 독주가 오케스트라와 분명한 거리를 이룬다고 평가한다. 이 평가는 1970년 녹음의 소리를 설명하는 비평가의 관찰이다.

Pierre Boulez가 Vienna Philharmonic과 2001년 녹음한 Deutsche Grammophon 음반을 놓고, The Classical Source의 비평가는 제 3악장의 Ohne Hast와 끝부분의 Nicht eilen을 따라 서두르지 않는 해석에 주목했다. 끝부분의 넓은 처리에는 놀랐지만 긴장감은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한 무대 밖 독주의 거리감은 실연장의 자연스러운 배치보다 녹음 기술의 결과처럼 들린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성부라도 악기의 선택, 무대에서의 위치, 마이크가 포착한 거리는 서로 다른 문제다. The Guardian의 Andrew Clements는 이
녹음을 Claudio Abbado와 Berliner Philharmoniker의 1999년 실황과 비교해 두 지휘자의 악장별 길이는 가깝지만 Boulez의 세부 처리와 표현의 절제를 특징으로 꼽았다.

주요 자료

오스트리아 학술원 Mahler-Online, GMW 31 작품 ·자료 카탈로그: 작곡 스케치와 편지, 악장 구상,
선행 연주, 초판 총보와 파트의 발행 시점.

국제 Gustav Mahler 협회, 1902년 Krefeld 공연 기록: 전곡 초연의 날짜와 공연 자료.

Mahler Foundation, 제 3번의 역사: 악장별 참고 시간과 제 1악장 뒤 휴지의 필사본 자료.

Universal Edition, Gustav Mahler 작품 카탈로그: 1974년 비평전집과 현대 연구 ·지휘용 악보의
서지.

Breitkopf & Härtel, Christian Rudolf Riedel 편집 제 3번: 2021년 판본의 범위, 자료 기반과 편성.

Berliner Philharmoniker, Susanne Stähr의 작품 해설: 악장 순서, 음악적 특징과 94분 기준.

Los Angeles Philharmonic, John Mangum의 작품 해설: 편성과 제 1~5악장의 음악 설명.

Mahler Foundation, 제 4악장의 Nietzsche 텍스트 및 제 5악장의 Es sungen drei Engel 해설: 두 성악 악장의 원어 가사와 사건.
WCRB, Andris Nelsons의 2018년 인터뷰: 제 1악장의 시작과 제 6악장의 긴 프레이즈에 관한
지휘자의 설명.
Benjamin Zander, 교향곡 제 3번 녹음 해설: 제 3악장 악기 선택, 제 4악장 목관 주법, 제 5악장 합창 배치.
London Symphony Orchestra 음반 목록 과 MusicWeb International, John Quinn의 Horenstein 음반 비평: 1970년 녹음 정보와 독립 비평.
Deutsche Grammophon, Boulez 녹음 소책자, The Classical Source의 음반 비평 과 The Guardian, Andrew Clements의 2003년 비교 평: 녹음 시점, 제 3악장 빠르기 ·공간감과 Abbado 녹음과의 비교.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6:47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6:47 UTC by 안준영